

##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 아 라 이 정 윤\*

성신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댓글 사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248명, 중학생 228명, 고등학생 260명과 20~30대의 대학생 또는 직장인 251명으로 총 987명이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이버언어폭력 유형'을 바탕으로 작성한 악성댓글 사용경험 질문지와 공격성척도, 충동성척도, 대인관계성향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남자가 여자보다 악성댓글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악성댓글 사용경험이 많았다. 실제로는 악성댓글을 쓰는 사람의 50% 이상이 그것이 악성댓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악성댓글을 쓰고 있었고, 쓴 후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악성댓글 사용 후 불안한 느낌을 보고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를 악성댓글 사용경험 정도에 따라 악성댓글 비사용집단, 악성댓글 저사용집단, 악성댓글 과다사용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인관계성향, 충동성,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과다사용집단에서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그리고 반항-불신적 대인관계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충동성과 공격성의 모든 하위유형에서도 과다사용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언어적공격성이 모든 연령대에서 악성댓글 비사용집단과 사용집단을 잘 구분해주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악성댓글, 공격성, 충동성, 대인관계성향

\* 이 논문은 이정윤의 지도로 이뤄진 조아라(2010)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36-742)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Tel: 02-920-7603, E-mail: jungyoon@sungshin.ac.kr

사이버 공간이 또 하나의 생활공간이자 상호작용의 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행동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악성댓글’로 표출되는 사이버언어폭력은 최근 국내외의 잇따른 연예인 자살(동아일보, 2008) 및 집단 자살(Kowalski, Limber, & Agatston, 2008a)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악성댓글은 특성상 빠른 전파력과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매우 크며, 사회적으로도 미확인된 사실이 대량 유포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2)에 따르면 사이버언어폭력에는 비방, 욕설, 도배, 성적욕설이나 유언비어 유포와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악성댓글’을 댓글의 형태로 가해지는 사이버언어폭력으로 정의하였다.

악성댓글을 비롯한 사이버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전자서명제, 정보통신법 개정을 통한 처벌 조항의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여 지난 2007년부터 법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정보통신법 개정 이후 이 같은 행동이 줄어들었다는 신뢰할 만한 결과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김재휘, 김연정, 2004). 이렇게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적인 제도가 시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력이 아닌 자율성에 기초한 사이버 행동통제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황상민(2004)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통제가 아닌 자율성, 즉 인간의 심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간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일탈행동 및 공격행동, 특히 피해가 심각한 언어폭력을 더 이상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외국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개념 및 유형을 비롯하여 사이버공격과 면대면 공격과의 차이점 등 사이버 공격행동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ampbell, 2005; Kowalski et al., 2008a). 또 사이버공격의 가해 및 피해 실태와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Li, 2007; Lacey, 2007; Campbell, 2007)을 바탕으로 사이버언어폭

력을 유발하는 환경적, 개인내적 요인을 찾으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Patchin & Hinduja, 2006; Baier, 2007; Jackson et al., 2008; Berarducci, 2009).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의 예방을 위한 개입이 심리학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Campbell, 2005; Kowalski et al., 2008b), 인터넷 뿐 아니라 모바일폰 등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Smith et al., 2008). 국내에서는 주리에, 권석만(2001)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인터넷 문제행동의 유형을 분석하고, 김재휘, 김지호(2002)가 각 문제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등의 연구를 시작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계에 대두되었다. 이후 사이버공격행동을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언어폭력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 피해사례 및 실태를 살펴본 연구(김대권, 2006; 정완, 2005)들이 이루어졌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행동을 인터넷 중독과 관련지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다(Griffiths, 1999; Suler, 1996b). 어기준(2000) 및 송명준 등(2001)은 인터넷중독을 하위유형으로 세분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채팅, 정보탐색, 성, 경제생활, 게임 등으로 인터넷중독에 각기 다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조미현과 신경선(2004)은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 중 채팅중독에서 사이버공격행동이 많이 발생됨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사이버공격행동에 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사이버언어폭력, 특히 악성댓글에 대한 국내연구는 주로 법조계와 교육계 분야(박정원, 이성흠, 2010; 이성식, 2005,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한성일, 2009)에서 이루어져, 심리학 분야의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언어폭력 중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하고 만연되어 있는 악성댓글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악성댓글이 대인관계성향, 충동성, 공격성 등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대인관계성향은 개인이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이다(Heider, 1958).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작용 방식이 평소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상당 수준 반영한다(고유진, 채규만 2001; 김기범, 김미희, 최상진, 2001; King, 1997; Ong, 1982)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사이버공간의 사회적 모습을 대인관계성향과 연관하여 살펴보려는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성식(2006)은 사이버언어 폭력에 관한 논문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이 자기과시 욕구가 높다고 주장하였고, 김광웅 등(2004)은 인터넷을 병리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대인관계성향에서 부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지배-우월적',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특히 언어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팅이나 통신에의 중독이 지배적 성격과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김옥순, 홍혜영, 1998; 안정화, 2003).

충동성은 주의집중력이 낮고, 만족을 연기할만한 자제력이 결여되며, 계획에 의한 활동보다는 즉각적인 판단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한 성격 특질이다. 이러한 충동성 역시 사이버공간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라민오, 2001; 황상민, 2000)으로 꼽히는데, 일반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 집단의 충동성이 높게 나타난 진선애(2006)의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선행연구(윤혜미, 남영옥, 2009; 이수진, 2008; 신길순, 구자경, 2005)에서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공격행동에 관한 외국의 여러 연구들(Berarducci, 2009; Baier, 2007)에서도 사이버폭력을 예측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충동성 및 낮은 자기통제력 등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충동성과 사이버일탈행동에 관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김재휘, 김지호(2002)는 사이버언어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기가 충동성임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은 싸움, 격투와 같은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비롯하여 욕설, 헐박과 같은 언어적 상해와 심리적인 상해 등을 포함하는 공격행동을 하고자 하는 성격특징으로 정의되는데,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공격행동이 더 많이 일어난다(김재휘, 김연정, 2004; 황상민 2000). Suler(1996a)의 연구를 시작으로 입증된 공격성과 사이버공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두 가지 상반되는 결과를 지지한다. 첫째는 현실에서의 공격성과 인터넷 상에서의 공격성이 일치한다는 주장(Young & Rodgers, 1998; 신소정, 2007)이다. 최근 국외에서는 현실에서의 공격성이 사이버언어폭력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Smith et al., 2008; Jackson et al., 2008). 둘째는 평상시에 폭언이나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이버공간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주장(황상민, 한규석, 1999; 천정웅, 2000; 김병석, 정은희, 2004)이다. Li(2007)는 공격행동 중 평상시와 사이버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격행동이 있는 반면, 상반되게 나타나는 공격행동도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병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충동성이 높고 대인관계에서 특정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상시 이들이 보이는 공격성 수준에 있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악성댓글을 사용(가해)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악성댓글 사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용실태(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자기인식 정도, 악성댓글 사용 공간, 사용이유, 사용 후 느낌)는 어떠한가? 둘째, 악성댓글 사용경험 정도에 따른 집단 간 심리사회적 변인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악성댓글 사용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집단과 악성댓글 사용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집단을 잘 구별해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악성댓글 사용경험 질문지의 제작을 위해 실시한 사전조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황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사전조사는 PC방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에게 남,여 10부 씩 회수되었다. 온라인 사전조사는 사이버공간의 안티카페 등에서 익명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20부가 회수되었다.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30대 성인까지 모두 1,1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직장인에게 각각 275부를 배부하였다. 이 중 회수되지 않았거나 두 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은 자료, 한 척도에 연속해서 동일문항에 응답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987부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료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524명(53.1%), 여자는 463명(46.9%)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초등학생이 249명(25.2%), 중학생 229명(23.2%), 고등학생 269명(27.3%), 대학/직장인 240명(24.3%)이었다.

## 측정도구

### 악성댓글 사용경험 질문지

악성댓글의 사용경험 여부를 묻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2)의 사이버언어폭력 유형과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악성댓글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거쳐 악성댓글사용경험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질문지는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악성댓글의 사용경험 여부(예 : '인터넷에서 댓글을 쓸 때 욕을 한 적이 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동의한 적이 있다')와 사용빈도를 묻는 9가지 문항을 '전혀 없다'-1점, '1번'-2점, '2~3번'-3점, '3번 이상'-4점의 Likert 척도로 최저 9점부터 최고 36점까지 채점하였다. 척도로 구성된 문항 외에 악성댓글에 대한 자기인식, 악성댓글을 쓴 이유나 쓴 후의 느낌을 묻는 4문항을 따로 포함시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Cronbach's  $\alpha$ 는 .82이었다.

### 대인관계성향 척도

대인관계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Leary(1957)의 대인관계행동차원 모형과 Schultz(1958)의 FIRO(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Krech(1962)의 대인관계성향 모형 등을 근거로 안범희(1985)가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래 7개 하위요인,

총 84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지배적-우월적', '동정적-수용적', '경쟁적-공격적', '과시적-자기도취적', '반항적-불신적' 5가지 하위요인을 선정하여 각 요인 당 5문항 씩 2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이 척도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사용할 때에는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4점 척도로 각 하위요인 당 점수범위는 5점부터 20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배적-우월적', '동정적-수용적', '경쟁적-공격적', '과시적-자기도취적',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3이었다.

### 충동성 척도

충동성 수준 측정을 위해 Barratt(1985)이 제작한 BIS-II(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를 이현수(1992)가 번역한 충동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충동성이라는 성격특질 하나만을 다룬 것으로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 무계획충동성의 3개 요인을 측정하며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를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사용할 때에는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4이었다.

### 공격성 척도

Buss와 Durkee(1957)이 제작한 공격성 척도(Hostility Scale)를 노안녕(1983)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8개 하위척도 총 75문항 중 간접공격성, 흥분성, 원한, 폭행, 언어적공격성 등 5개 하위요인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하위요인 당 5문항 씩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사용할 때에는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 결 과

### 악성댓글 사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용 실태

악성댓글 사용경험 질문지 중 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서 악성댓글 사용수준 및 분포에 따라 악성댓글 비사용집단, 악성댓글 저사용집단, 악성댓글 과다사용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악성댓글 비사용집단은 연구자가 제작한 악성댓글사용경험 질문지에서 9~10점(50.6%), 저사용집단은 11~17점(34.9%), 과다사용집단은 18점 이상(14.6%)의 점수를 받은 대상자로 구성하였다. 이들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악성댓글 사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X<sup>2</sup>검증,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악성댓글 사용경험 분포(표 1)를 살펴보면, 남자의 44.3%, 여자의 57.7%가 악성댓글 비사용집단, 남자의 37.0%, 여자의 32.4%가 저사용집단, 남자의 18.7%, 여자의 9.9%가 과다사용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악성댓글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성댓글 과다사용집단은 남성이 여성의 2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별 악성댓글 사용경험 분포(표 1)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41.9%, 중학생의 41.7%, 고등학생의 51.5%, 대학/직장인의 66.1%가 악성댓글 비사용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초등학생의 43.1%, 중학생의 39.0%, 고등학생의 31.5% 대학/직장인의 26.3%가 저사용집단, 초등학생의 14.9%, 중학생의 19.3%, 고등학생의

16.9%, 대학/직장인의 7.6%가 악성댓글 과다사용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악성댓글을 더 많이 사용하며, 특히 중학생에게서 과다사용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신이 악성댓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 악성댓글의 사용경험과 이들이 보고하는 악성댓글의 사용경험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표 2)하였다. 그 결과, 비사용집단의 경우 ‘쓴 적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95.2%로, 실제 행동과 인식하고 있는 행동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저사용집단과 과다사용집단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악성댓글을 쓴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지만 자신은 악성댓글을 ‘쓴 적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69.8%, 50%에 달했다.

셋째,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악성댓글을 주로 어디에 기재하는지 알아본 결과(표 3), ‘인터넷 게시판이나 뉴스(26.7%)’에 악성댓글을 주로 많이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클럽이나 카페(32.5%)’, 대학/직장인 집단은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72%)’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악성댓글을 사용한 이유(표 3)로는 ‘다른 리플들을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가 20%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서(14.4%)’였다. 또한 ‘심심해서 재미로(8.9%)’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8.7%)’이 각각 3, 4순위에 해당하여, 아무 이유 없이 악

표 1.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경험 단위 : 명(%)

성별/연령	비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과다사용집단		X <sup>2</sup>
	N	%	N	%	N	%	
남자 (N=524)	232	(44.3)	194	(37.0)	98	(18.7)	23.179***
여자 (N=463)	267	(57.7)	150	(32.4)	46	(9.9)	
성별전체 (N=987)	499	(50.6)	344	(34.9)	144	(14.6)	44.371***
초등학생 (N=248)	104	(41.9)	107	(43.1)	37	(14.9)	
중 학생 (N=228)	95	(41.7)	89	(39.0)	44	(19.3)	
고등학생 (N=260)	134	(51.5)	82	(31.5)	44	(16.9)	
대학/직장(N=251)	166	(66.1)	66	(26.3)	19	(7.6)	
연령전체 (N=987)	499	(50.6)	344	(34.9)	144	(14.6)	

\*\*\* p<.001

표 2. 집단 간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단위 : 명(%)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비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과다 사용집단	전체	$X^2$
있다	24 (4.8)	104 (30.2)	72 (50.0)	200 (20.3)	174.361***
없다	475 (95.2)	240 (69.8)	70 (50.0)	786 (79.6)	

\*\*\* $p < .001$

표 3. 연령별 악성댓글 사용장소, 사용이유, 사용 후 느낌

단위 : 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직장인	전체	$X^2$	
사용장소	클럽, 카페	81(32.5)	36(15.9)	32(12.3)	9(3.6)	158(16.0)	155.783***
	게시판, 뉴스	41(16.5)	73(32.2)	91(35.0)	59(23.5)	264(26.7)	
	홈피, 블로그	24(9.6)	30(13.2)	25(9.6)	18(7.2)	97(9.8)	
	안티사이트	12(4.8)	22(9.7)	2(0.8)	10(4.0)	46(4.7)	
	기타	10(4.0)	1(0.4)	4(1.5)	6(2.4)	21(2.1)	
사용이유	무응답/기제경험없음	81(32.5)	65(28.6)	106(40.8)	149(59.4)	401(40.6)	104.227***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	29(11.6)	34(15.0)	36(13.8)	43(17.1)	142(14.4)	
	다른 리플을 보고 기분이 나빠짐	58(23.3)	62(27.3)	53(20.4)	24(9.6)	197(20.0)	
	다른 일로 짜증이 나서	39(15.7)	19(8.4)	11(4.2)	4(1.6)	73(7.4)	
	심심해서 재미로	20(8.0)	23(10.1)	31(11.9)	14(5.6)	88(8.9)	
사용후 느낌	특별한 이유없이	22(8.8)	24(10.6)	23(8.8)	17(6.8)	86(8.7)	103.695***
	무응답/기제경험없음	81(32.5)	65(28.6)	106(40.8)	149(59.4)	401(40.6)	
	성취감에 뿌듯했다	2(0.8)	3(1.3)	5(1.9)	4(1.6)	14(1.4)	
	속이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풀렸다	22(8.8)	15(6.6)	20(7.7)	12(4.8)	14(1.4)	
	재미있었다	18(7.2)	17(7.5)	20(7.7)	12(4.8)	67(6.8)	
느낌	상대가 걱정되었다	15(6.0)	9(4.0)	0(0.0)	2(0.8)	26(2.6)	103.695***
	불안하고 신경 쓰였다	33(13.3)	36(15.9)	9(3.5)	11(4.4)	89(9.0)	
	별다른 느낌 없었다	79(31.7)	82(36.1)	100(38.5)	61(24.3)	322(32.6)	
	무응답/기제경험없음	80(32.1)	65(28.6)	106(40.8)	149(59.4)	400(40.5)	

\*\*\* $p < .001$

성댓글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집단 결과와 달리 '다른 일로 짜증이 났기 때문에(15.7%)'가 2위를 차지하였다.

다섯째, 악성댓글 사용 후 느낌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표 3)에는 '별다른 느낌 없었다(32.6%)'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상대가 걱정되었다'에 해당하는

반응은 2.6%에 불과했다. 이를 다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집단이 악성댓글 사용 후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다(각각 13.3%, 15.9%)'는 등의 부정적인 느낌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악성댓글 사용에 따른 심리사회적 변인의 차이**

악성댓글 사용 집단간 심리사회적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표 4), 대인관계성향, 충동성, 공격성 모두에서  $p<.0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유형인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에서 악성댓글 비사용 및 저사용집단보다 과다사용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반항-불신적 성향 역시 악성댓글 과다사용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저사용집단이 높았고, 비사용집단은 가장 낮았다. 반면 동정-수용적 성향에서는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일수록 점수가 낮았다. 충동성에서도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충동성의 하위유형인 인지충동성과 운동충동성에서는 악성댓글 비사용 및 저사용집단보다 과다사용집단의 점수가 높았고, 무계획충동성은 비사용집단보다 저사용집단, 저사용집단보다 과다사용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공격성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악성댓글 과다사용집단의 점수

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저사용집단, 비사용집단의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자기인식정도를 알아본 문항에서 악성댓글 사용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집단과 ‘없다’고 보고한 집단에 대하여 LR(Likelihood Ratio)을 최대로 하는 후진대입법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먼저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무계획충동성, 원한, 언어적공격성의 측정점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악성댓글을 사용할 가능성이 각각 1.07배, 1.07배, 1.2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무계획충동성에서 측정점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악성댓글 사용 가능성이 1.12배, 언어적공격성에서는 1.2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언어적 공격성 점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악성댓글을 사용할 가능성이 1.31배 높았다. 또한

표 4. 악성댓글 사용에 따른 집단 간 심리사회적 변인에서의 차이검증

심리사회적 변인	비사용집단a	저사용집단b	과다사용집단c	F	Scheffe
	M(SD)	M(SD)	M(SD)		
지배-우월적	9.72(2.29)	9.84(2.36)	11.12(2.85)	19.716***	a<c, b<c
동정-수용적	13.99(2.13)	13.51(2.46)	12.94(2.86)	12.109***	a>b>c
경쟁-공격적	11.11(2.53)	11.56(2.44)	13.01(2.80)	31.023***	a<c, b<c
과시자기도취	9.85(2.29)	10.14(2.70)	11.14(3.40)	12.225***	a<c, b<c
반항-불신적	10.06(2.50)	10.54(2.58)	11.78(2.92)	24.956***	a<b<c
대인관계 전체	54.73(8.34)	55.59(8.50)	59.99(10.02)	20.784***	a<c, b<c
인지충동성	15.01(2.62)	15.42(2.86)	16.28(2.85)	12.228***	a<c, b<c
운동충동성	16.78(3.62)	17.19(3.94)	19.88(4.15)	37.579***	a<c, b<c
무계획충동성	20.05(3.76)	21.08(3.99)	22.94(3.87)	32.357***	a<b<c
충동성 전체	51.85(8.43)	53.69(9.15)	59.10(9.15)	38.141***	a<b<c
간접공격성	11.82(2.46)	12.51(2.48)	14.11(2.59)	47.883***	a<b<c
홍분성	11.11(2.83)	12.55(2.99)	13.69(2.93)	53.850***	a<b<c
원한	10.09(2.66)	11.05(2.93)	12.41(3.07)	40.461***	a<b<c
폭행	11.30(2.86)	12.45(2.90)	14.12(3.01)	56.452***	a<b<c
언어적공격성	10.24(2.66)	11.14(2.66)	13.22(2.67)	70.863***	a<b<c
공격성 전체	54.57(10.67)	59.69(10.75)	67.54(10.71)	86.909***	a<b<c

\*\*\* $p<.001$

고등학생은 반항-불신적 성향, 무계획충동성, 언어적공성향, 충동성, 공격성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조

표 5.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령	심리사회적변인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초등 학생	무계획충동성	.114	.039	8.689	1	.003	1.121
	언어적공격성	.230	.059	15.206	1	.000	1.259
중학생	언어적공격성	.271	.065	17.528	1	.000	1.311
고등 학생	동정-수용적 성향	-.165	.075	4.812	1	.028	.848
	반항-불신적 성향	.168	.079	4.495	1	.034	1.183
	무계획충동성	.118	.050	5.629	1	.018	1.125
	언어적공격성	.274	.083	10.860	1	.001	1.315
대학 /	과시-자기도취적성향	.222	.085	6.833	1	.009	1.248
	홍분	.235	.092	6.536	1	.011	1.264
직장인	언어적공격성	.209	.106	3.912	1	.048	1.232
	무계획충동성	.069	.022	9.549	1	.002	1.072
전체	원한	.066	.033	4.034	1	.045	1.068
	언어적공격성	.182	.035	27.126	1	.000	1.199

격성에서 변인의 측정점수가 증가할수록 악성댓글을 사용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동정-수용적 성향 및 홍분에서 변인의 점수가 증가할수록 악성댓글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대학/직장인의 경우 과시-자기도취적 성향, 홍분, 언어적공격성이 증가할 때 악성댓글 사용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모든 연령에서 언어적공격성이 이 두 집단을 가장 잘 구분해주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2~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악성댓글 사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악성댓글 사용과 관련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악성댓글 사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악성댓글 비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 과다사용집단 간에 대인관계

사하였다. 아울러 악성댓글 사용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집단과 ‘없다’고 보고한 집단을 구분해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악성댓글 사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자보다 남자가 악성댓글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악성댓글 과다사용집단은 남성이 여성의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악성댓글 사용경험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악성댓글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성댓글 과다사용집단은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나이가 적은 아동 및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악성댓글 사용자로 많이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여러 선행연구(박순미, 2008; 이성식,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국외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하므로 이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Lacey, 2007; Campbell, 2007). 그러므로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악성댓글 사용과 관련한 요인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악성댓글 사용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자기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악성댓글을 기재한 사람들 중에 ‘악성댓글을 쓴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저사용집단에서는 69.8%, 과다사용집단에서는 50%에 달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악성댓글을 쓰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자기인식이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이는 악성댓글을 예방하는 교육이나 캠페인을 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이나 캠페인은 ‘악성댓글을 쓰지말자’고 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악성댓글을 쓰지 말자고 교육하기 이전에, 악성댓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사이버공간에서 하는 일이 악성댓글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여주는 일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악성댓글의 정의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악성댓글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악성댓글과 같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이트를 개발하여 사이버폭력의 유형, 각 유형 별 정의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사이버공간으로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뉴스(26.7%)’가 가장 많았다. 이는 악성댓글이 인터넷 게시판, 뉴스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김계원, 서진완, 2009; 한성일, 2009)와 일치한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들과 같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댓글을 제한하거나 댓글이 저절로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개발하여 공적인 사이버공간에서 악성댓글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악성댓글을 사용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다른 리플들을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가 20%로 가장 많았고, 2위로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서(14.4%)’가 악성댓글을 사용하게 된 이유로 꼽혔다. 이는 악성댓글

사용이 본문 또는 다른 리플들에 대한 일종의 ‘답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악성댓글의 피해가 가해를 유도한다는 Riccardi(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그는 피해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가 악성댓글 사용의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무 이유 없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악성댓글을 기재한 사람들의 심리적 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다른 일로 짜증이 나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교육하는 일이 어린 학생들의 악성댓글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악성댓글 사용 후의 느낌에 대해 ‘별다른 느낌 없었다(32.6%)’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상대가 걱정되었다’에 해당하는 반응은 2.6%에 불과했다. 따라서 악성댓글을 사용한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및 상처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집단의 경우,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다’는 응답이 각각 13.3%, 15.9%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악성댓글을 쓴 후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악성댓글을 많이 쓰는 한편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아동 청소년 집단에서 악성댓글 예방 교육의 효과가 더 높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보인다. 외국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 청소년에게 악성댓글의 개념과 행동목록을 자세히 안내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Gomez, 2007).

두 번째로, 악성댓글 사용에 따른 심리사회적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대인관계성향에서는 악성댓글 과다사용집단이 저사용집단이나 비사용집단에 비해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특히 반항-불신

적 성향은 저사용집단과 비사용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긍정적 대인관계 성향인 동정-수용적 성향에서는 악성댓글을 사용할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을 병리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더 지배-우월적 성향을 보이고, 이들은 대면관계에서보다 온라인관계에서 더욱 과시적이며 자기도취적임을 입증한 김광웅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충동성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 운동, 무계획충동성 하위유형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인지, 운동, 무계획충동성 점수가 비중독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난 진선애(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손지향, 송현주(2007)는 게임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다른 충동성의 하위유형과는 달리 인지충동성을 게임중독과 무관한 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떤 것에 몰입하거나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인지충동성 역시 악성댓글 사용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점수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간접공격성, 흥분성, 원한, 폭행, 언어적공격성이 모두 높았다. 이는 현실에서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사이버공간에서도 공격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Suler, 1996a; 신소정, 2007, Smith et al., 2008; Jackson et al., 2008)와 일치하나, 평상시에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사이버공간에서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연구(황상민, 한규석, 1999; 김병석, 정은희, 2004; Li, 2007)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상시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수록 사이버공간에서도 악성댓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변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악성댓글 사용 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집단과 '있다'고 보고한 집단 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연령집단에서 언어적 공격성이 공통적으로 두 집단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 공격성이 악성댓글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순미(2008)의 연

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무계획충동성이 높을수록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계획충동성은 계획이나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특성으로, 고등학생에서도 역시 무계획충동성이 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혔다. 따라서 무계획충동성으로 인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게시판 하단에 바로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댓글시스템 대신, 클릭을 해야 댓글이 기재되는 등의 장치를 개발하여 사람들이 댓글을 기재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은 충동성 외에도 반항-불신적 성향이 높을수록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대인관계성향 하위유형 중 동정-수용적 성향의 점수가 높을수록 악성댓글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관점 바꿔 생각하기와 같은 인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omez(2007)와 Riccardi(2008)도 이와 같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Riccardi(2008)는 악성댓글 피해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 '같은 악성댓글로 답변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할 것'을 권유했다. 또 Gomez(2007)는 악성댓글 예방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워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학/직장인의 경우 과시-자기도취적 성향과 흥분이 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의 결과는 청소년의 사이버언어폭력이 자기과시욕구와 연관이 있다는 이성식(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령대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의 실태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각각의 연령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인을 각각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서

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인구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교차 타당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측정도구의 미비점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먼저 ‘악성댓글 사용 경험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 악성댓글사용집단을 구분하는 측정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척도는 신뢰도만 제시하였을 뿐, 타당도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미흡한 점이며, 추후에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악성댓글 사용경험과 관련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사이버언어폭력 및 악성댓글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셋째, 집단의 분류 시 제한점이 있었다. 본 논문은 ‘악성댓글 사용경험 질문지’ 중 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점수에 따라 악성댓글 비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과다사용집단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악성댓글 사용실태,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임의적 집단분류로 인해 연구결과의 타당도 확보가 미흡했을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 시에는 통계방법의 제한점으로 인해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집단이 달리 분류되었다. 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악성댓글 사용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타당한 집단의 분류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본 연구의 자료는 자기보고형식에 의해 얻어졌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연구주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관찰연구나 질적연구를 통해 자기보고 형식의 조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소홀히 되어 오던 사이버언어폭력과 악성댓글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악성댓글을 많이 쓰며, ‘짜증이 나서’ 등의 감정적인 이유로 악성댓글을 사용하지만, 사용 후에는 불안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악성댓글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대체할만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나 행동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악성댓글을 쓰면서도 이에 대한 자기인식이 낮은 점으로 미뤄보아, 악성댓글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악성댓글 예방에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정-수용적인 성향이 낮음을 고려할 때,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 감정이입에 관한 교육과 상담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고유진, 채규만 (2004). 인터넷 중독집단의 성격특성 및 자기개념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 365-366.
- 김광웅, 유미숙, 이지향 (2004). 인터넷중독 여부에 따른 온라인대인관계 성향과 대면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아동학회지**, 25(2), 109-120.
- 김계원, 서진환 (2009). 사이버 폭력에 관한 연구(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7-318.
- 김기범, 김미희, 최상진 (2001). 정서적 고독감과 인터넷 효능감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6(2), 39-57.
- 김대권 (2006).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 인터넷을 사용하는 20대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2(2), 145-174.
- 김병석, 정은희 (2004). 인터넷 채팅중독 청소년의 공격성, 사회적지지 지각, 인지적 대인문제 해결능력

- 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1), 91-99.
- 김옥순, 홍혜영 (1998). 통신중독증. **정보사회와 청소년**. 서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173.
- 김재휘, 김연정 (2004).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적 실재감의 지각과 공격행동.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3), 83-101.
- 김재휘, 김지호 (2002). 인터넷 일탈행동 및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소비자, 광고**, 3(2), 91-110.
- 동아일보 스포츠 (2010). "네가 무조건 싫다" 스타 잡는 문지마 악플. 8월 11일.
- 라민오 (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미 (2008). **초등학생의 사이버 악성댓글의 실태 분석을 통한 법교육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원, 이성흠 (2010). 가상공간의 '악성댓글'에 대한 자율구제와 네티켓교육. **교육 법학연구**, 22(1), 21-47.
-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9. 10). 2002. 3. **사이버언어폭력**. <http://www.kcc.go.kr>
- 손지향, 송현주 (2007). 청소년의 충동성과 게임중독과의 관계. **심리치료**, 7(2), 91-106.
- 송명준, 허유정, 이은정, 권정혜 (2001). 인터넷 중독 : 중독적 특성, 중독의 결과 및 중독자의 하위유형.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5, 고려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 신길순, 구자경 (2005). 성인의 심리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6(4), 1152-1161.
- 신소정 (2007).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과 인터넷 게임중독 및 공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범희 (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정화 (2003). **대인관계문제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채팅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준 (2000). **청소년 PC중독의 유형과 문제점. 청소년 PC중독**.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혜미, 남영옥 (2009).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자존감, 우울, 충동성과 사회관계. **생활과학연구논총**, 13(1), 125-143.
- 이성식 (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요인들과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1), 77-108.
- 이성식 (2006).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형사정책**, 18(2), 421-440.
- 이수진 (2008).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변인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5(2), 175-192.
- 이현수 (1994). 충동성의 유형. **인문학연구**, 21, 93-104.
- 정완 (2005).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13(2), 329-359
- 조미현, 신경선 (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현황 및 원인.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7(5), 45-56.
- 주리애, 권석만 (2001). 인터넷을 매개로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유형분석 :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심리과학**, 10(1), 93-115.
- 진선애 (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 **아동교육**, 15(3), 221-224.
- 천청용 (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0.). 2003. 6. **사이버범죄 조사**.
- 한성일 (2009). 인터넷 댓글의 비방성에 관한 연구. **한말연구**, 24, 287-314.
- 홍경자, 노안녕 (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4(1), 19-31.
- 황상민 (2000). 신세대의 자기표현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작용 : 사고와 행동 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3), 9-19.
- 황상민 (2004).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서울: 21세기

- 복스.
- 황상민, 한규석 (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 서울: 박영사.
- Baier, S. (2007). *A critical review of literature : understanding bullying behaviors of children*.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Stout. MS. Education.
- Barratt, E. S., (1985). Impulsiveness subtraits : Arousal and information processing. In J. T. Spence & C. E. Izard(Eds.), *Motivation, Emo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Elsevier.
- Berarducci, L. R. (2009). *Traditional bullying victimization and new cyberbullying behaviors*. Ohio : University of Dayton.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 Campbell, M. A. (2005). Cyber bullying: An old problem in a new guise?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15*(1), 68-76.
- Campbell, M. A. (2007). *Cyber bullying and young people: Treatment principles not simplistic advice*. Paper of the week 23rd. Retrieved from www.scintist-practitioner.com.
- Gomez, D. (2007). *Cyberbullying and electronic stalking: The ins and outs of these offences on the rise*. Ann Arbor: Eastern Michigan University.
- Griffits, M. D. (1999).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5), 246-250.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Jackson, M. Cassidy. W., & Brown, K. N. (2008). "You were born ugly and you dia ugly too". *Cyber-bullying as relational aggression*. Regina : University of Regina.
- King, S. A. (1996). *Is the internet addictive, or are addicts using the Internet?* World Wide Web.
- Kowalski, R. M., Limber, S. P., & Agatston, P. W. (2008a). Cyber bully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1-821.
- Kowalski, R. M., Limber, S. P., & Agatston, P. W. (2008b). *RURD? The nuances of cyber bullying*. Malden, MA : Blackwell.
- Krech, D., Crutchfield, R. S., & Ballachey, E. L. (1962).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McGraw Hill Book.
- Lacey, B. (2007). *Social aggression : A study of internet harassment*. New York : Hofstra University.
- Leary, T. R.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 Li, Q. (2007). New bottle but old wine: A research of cyberbullying in school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4), 1777-1791.
- Ong, W. (1982).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ld*. London : Methuen.
- Patchin, J. W., & Hinduja, S. (2006).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 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4*, 148-169.
- Riccardi., B. K. (2008). *Cyber bullying: Responsibilities and solutions*. New York: Rice High School.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76-385.
- Schultz, W. C. (1958). *FIRO : A tree-dimension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Rindhart & Company, Inc.
- Suler, J. (1996a).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at the palace*, World Wide Web.

Suler, J. (1996b). *The psychology of cyberspace*.  
World Wide Web.

Young, K. S., & Rodgers, R. (1998). Internet  
addiction: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its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69th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원 고 접 수 일 : 2010. 0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0. 27.

게 재 결 정 일 : 2010. 11. 09.

## An Exploratory Study on Vicious Cyber Replies

Aha Ra Cho     Jungyoon L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sychosocial effects on recent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vicious cyber repliers. The participants were 248 primary students, 228 middle school student, 260 high school student and 251 aged between 20-30, all residing or enrolled with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Hostility Scale, BIS-2,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Scale and with reference to the survey results of interviews conducted with vicious cyber repliers. Through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younger the replier's ages, they had high tendency to write offensive vicious replies and more males were involved compared to those of the female vicious repliers. It was an amazing find that more than 50% of all the vicious repliers felt no sense of guilt nor considered their behaviour to be offensive or vicious. On the other hand, prim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ere reported to have a sense of guilt when writing vicious cyber replies. Through the research on groups with high usages of vicious replies, lower using groups and groups not using vicious replies has shown that the high usage group has a higher tendency of suffering from aggression, impuls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such as 'dominant superiority', 'competitive aggression', 'self-ostensive inclination' and 'disobedient distrust'. Moreover, the abusive verbal aggression can be used as tool of determination to classify between vicious cyber repliers and the non groups that does not use vicious cyber replies. Finally, the limitation and implic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vicious cyber reply, aggression, impulsivenes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